

統一情勢分析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분석

2003. 9

박형중(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요 약>

- 북한은 1998.7.26에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한 이후, 헌법 규정대로 5년만인 2003.8.3 제11기 선거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9.3 1차 회의를 거행함.
-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치지도부와 일반 주민 간에 광범한 통일성을 과시하고 축하하는 기능을 가짐.
 - 현 권력 체계의 강력함과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현 공산당 권력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함.
 - 이번 11기 선거 및 1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행사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여러 행사들이 기획되고 거행됨.
- 6.3 선거 공고 이후 8.3 선거 날까지 취해진 여러 조치와 군중행사는 과거와 별 다른없는 정형에 따라 진행됨.
 - 행사와 조치의 주목적은 100퍼센트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선거를 통해 주민을 결집시킴으로써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특히 정권수립 55주년을 앞두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경제건설에 매진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등의 방향에서 주 선전 방향을 설정함.
-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는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음.
 - 다만, 선거 결과로 선출된 대의원의 구성 등을 보면, 정권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거를 기획했는가가 나타난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함.

○9.3 1차 회의에서 발표된데 따르면, 대의원의 사회적 구성은 10기와 비교할 때 11기의 경우, 직업별, 연령별, 성별 구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고학력 및 전문가 우대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권 엘리트 구성에서 테크노크라트적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9.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양형섭의 개회사,
- 의장과 부의장 선거,
- 제11기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선거 등을 거쳐,
- 세 가지 의안 채택 및 결정
- 대의원 자격심사 보고 및 승인
- 신임 내각 총리 (박봉주) 선서
- 폐회사

○세 가지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음.

-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
- 국가지도기관 선거
- 핵문제에 관련한 외무성의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 채택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종결 직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경축하는 대회들이 열림.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와 회의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며, 9.9 공화국 창건 55돌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개인에 대한 충성 결의 및 그의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다시는 기능을 수행함.

○ 이번 선거를 통해 북한은 지도부의 연속성, 내부 정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북한 헌법 규정대로 5년 주기의 대의원 선거를 개최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례적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국가기관 기능과 내부 정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함.

○ 1차 회의가 핵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지만, 새로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며 다만 외무성의 입장을 확인하고 뒷받침하는 기능을 함.

○ 신임 총리에 박봉주가 임명된 것은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고 부르고 있는 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경공업과 관련이 깊은 화학공업상 출신의 박봉주는 내각 총리로서 민생 경제를 총괄할 것으로 보이며, 군수공업 중심지인 자강도당 비서이자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으로 새로이 승격된 연형묵은 '국방공업 우선론'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정책 방향>

○ 핵문제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 내각에 남한 경제 사정에 밝은 경제

전문가의 중용을 볼 때,

- 앞으로 북한의 내부 경제 정책이 보다 합리성을 띠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함.
-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기존에 남북간에 합의하였던 경협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러한 협력 사업이 북한 내부의 변화 및 온건파의 입지 강화에 대한 의의를 미국과 일본 등에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함.

- 목 차 -

I. 서론	1
II. 선거 공고 및 선거 동원 동향	2
III. 8.3 선거 결과	4
IV.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	7
V. 결론 및 종합 분석	10
<자료 1> 역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	13
<자료 2> 역대 최고인민회의 선거 개관	14
<자료 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명단	15
<자료 4> 주요 국가지도기관 현황	18

I. 서론

- 북한은 1998.7.26에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한 이후, 헌법 규정대로 5년만인 2003.8.3 제11기 선거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9.3 1차 회의를 거행함.
-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치지도부와 일반 주민 간에 광범한 통일성을 과시하고 축하하는 기능을 가짐.
 - 현 권력 체계의 강력함과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현 공산당 권력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함.
- 북한의 이번 선거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6.3 선거 개시일 공고 이후에서 선거일 까지 그리고 9.3 1차 회의 소집 이후에도, 선거 참여 독려 행사 및 체제 결속을 다지는 대소 규모의 군중행사를 거행함.
 - 이번 11기 선거 및 1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행사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여러 행사들이 기획되고 거행됨.
- 여기서는 6.3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공고 이후의 여러 행사, 1차 회의의 여러 의제와 사후 행사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북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II. 선거 공고 및 선거 동원 동향

- 선거 공고 이후 선거 날까지 취해진 여러 조치와 군중 행사는 과거와 별 다른 없는 정형에 따라 진행됨.
 - 행사와 조치의 주목적은 100퍼센트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선거를 통해 주민을 결집시킴으로써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특히 정권수립 55주년을 앞두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며, 경제건설에 매진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등의 방향에서 주 선전 방향을 설정함.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3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8.3에 실시하기로 결정함.
 - 1998.7.26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5년 임기 만료에 맞추어진 정상적인 행사임.
 - 9기 최고인민회의는 정상적 임기 5년을 3년 3개월 넘긴 8년 3개월 동안 활동한 바 있음(1990.4.22~98.7.25). (<자료 1> 참조)

- 6.8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위원회」가 조직됨.

- 6.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8.3 실시한다고 공고함.
 -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4년인 바, 지난 선거는 1999.3 실시된 바 있음.

- 7.1 김정일은 제649호 선거구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거자

대회가 열린 이후, 7.7까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추대 선거자 회의가 열려 김정일을 후보자로 추대하였으며, 김정일은 7.12 「공개서한」을 발표, 최초 추대 선거구인 제649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함.

- 북한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권창건 55돌(9.9)를 앞두고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8.3 선거 후 개최될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 환영을 유도함.

○ 김정일의 후보등록 결정을 담은 「공개서한」 발표 및 등록 이후 북한은 계속하여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노력함.

- 제649 선거구 선거자 「충성의 결의대회」를 개최(7.12),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7.14), 전체 선거구에서 김정일의 공개서한에 보답하는 충성의 결의대회를 개최함.(7.13~15)

○ 이밖에도 북한은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분위기를 유도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했음.

- 신문·방송, 선전구호, 선전화, 공연 등 다양한 선전선동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 축제분위기를 조성함.
- 8.3 선거를 앞두고 선거 참여를 위해 대대적으로 주민등록을 정비하는 한편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이동을 제한했음.

Ⅲ. 8.3 선거 결과

-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는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음.
 - 선거 결과 보다는 정권에의 결집을 다지는 과정으로서의 선거 공고부터 선거 실시 일까지 선거 운동 및 행사의 과정이 더 큰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선거 결과로 선출된 대의원의 구성 등을 보면, 정권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거를 기획했는가가 나타난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함.

- 북한은 8.4 15시 12분 「중앙선거위원회 보도」를 통해 전날 실시된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결과를 발표함.
 - 선출된 대의원 수는 총 687명(제10기, 제9기와 동일)이며, 투표율은 99.9%, 찬성율은 100%임.(<자료 2> 참조)

-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러한 선거 결과를 공화국 정권에 대한 전체 선거자의 지지와 신뢰의 표시라고 평가함.
 -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보다 공고히 하고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가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선군조선의 혁명적 기상을 과시했다고 평가함.

- 총 687명의 대의원 중 교체·선출된 제10기 대의원은 모두 343명으로 교체비율이 50퍼센트에 달함.(<자료 3> 참조)
 - 제10기의 경우 제9기 대의원들 중 교체·선출된 대의원은 443명으로 64퍼센트의 교체율을 보임.
 -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일종의 국가가 부여하

는 상훈 및 명예직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대의원의 주기적 대규모 교체는 정권 충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음.

○9.3 1차 회의에서 전병호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사회적 구성은 아래와 같음.

- 누가 대의원이 되는가와 그 사회적 구성은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의 의도를 반영함.

○직업별¹⁾

	제10기	제11기
노동자	33.4	31.3
협동농장원	9.3	9.3

○연령별

구 분	제11기	제10기
35세 이하	2.2%	1.9%
36세~55세	50.1%	48.5%
56세 이상	47.7%	49.6%

○성 별

구 분	제11기	제10기
여 성	20.1%	20.1%
남 성	79.9%	79.9%

1) 도표는 주간 북한동향(제659호): 2003-08-29~2003-09-04 참조.

○ 학력별

구 분	제11기	제10기
대 졸	91.9%	85%
전문학교 고등기술학교 졸	6.1%	15%

○ 기타 명예칭호자, 학위·학직 소유자 등

구 분	제11기	제10기
영웅칭호 등 명예칭호 소유자	48.0%	63.8%
학위·학직 소유자,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89.5%	64.5%

○ 대의원의 사회적 구성을 보면, 10기와 비교할 때 11기의 경우, 직업별, 연령별, 성별 구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고학력 및 전문가 우대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권 엘리트 구성에서 테크노크라트적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학력별 구성에서 대졸이 7퍼센트 늘어나고, 전문학교·고등 기술학교 출신은 9퍼센트 줄어들었으며, 명예칭호 소유자가 16퍼센트 줄어들고, 학위 소유자 및 전문가 출신이 25퍼센트 증가했음.

IV.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8.7 제1차 회의를 9.3 평양에서 소집할 것을 결정함.

- 10기 1차 회의(1998.9.5)와 마찬가지로 11기 1차 회의도 하루 동안만 소집됨.
- 9기 1차(1990.5.24~25) 및 8기 1차 회의(1986.12.29~30)는 이틀 동안 소집됨.

○9.3 노동신문은 11기 1차 회의는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워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가 운명공동체를 이룬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 나가는 데서 의의 깊은 사변’ 등으로 평가함.

○1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양형섭의 개회사,
- 의장과 부의장 선거,
- 제11기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선거 등을 거쳐,
- 세 가지 의안 채택 및 결정
- 대의원 자격심사 보고 및 승인
- 신임 내각 총리 (박봉주) 선서
- 폐회사

○세 가지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음.

-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
- 국가지도기관 선거
- 핵문제에 관련한 외무성의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 채택

○ <국방위원장 추대>

- 북한 헌법상 국방위원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의 회기와 동일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에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의 제의를 최고인민회의에 제기함.
- 모든 대의원과 참가자들이 열광적 환호와 우렁찬 박수로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추대 행사를 종결함.

○ <국가지도기관 선거>와 관련 다음의 기관을 선거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등을 선거
 -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거하여,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을 선거
 - 내각 총리 선거
 - 내각 총리의 제기에 따라 내각 성원들을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를 선거
- *그 명단은 별첨 <자료 4> 참조

○ 핵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함.

- <조미 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
- 주요 내용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려 하지 않고 북한을 완전 무장 해제시키려 기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6자회담에 기대도 흥미도 없다는 것과, 정당방위수단으로써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계속 강화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 외무성

의 견해를 지지하며, 그에 따른 해당한 대책을 취하기로 결정한
다’는 것임.

○대의원 자격심사위원장 전병호는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밝히고
그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연설을 거행함.

○신임 내각 총리 박봉주는 선군정치를 정권 건설과 활동의 유일
한 지침으로 삼으며, 경제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
을 다짐함.

- 국방 공업의 우선적 발전, 인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에 매진함.
-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감.
-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 인민적 시책들을 실시하여 사
회주의 우월성 발휘할 것을 다짐.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경축하는 대회들이 열림.

- 9.4 ‘평양시 100만 경축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언론매
체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대대적으로 경축함.
- 9.5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 등 지역별로, 그리고 직맹
원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대회가 열림.
- 이밖에도 직접 관련은 없지만 9.5 선군시대 영웅대회가 평양에서
열림.

V. 결론 및 종합 분석

-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및 1차 회의 소집은 헌법상 규정에 따라 의례적인 행사로 치루어 짐.

- 이번 선거와 회의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며, 9.9 공화국 창건 55돌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개인에 대한 충성 결의 및 그의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다지는 기능을 수행함.
 - 6월 초 선거 공고 발표 이후, 북한 내부를 선거 경축 분위기 및 김정일과 그의 정책에 대한 충성 결의, 그리고 9.9 공화국 창건 55돌 경축 분위기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옴.
 - 금년도에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경제상황과 더불어 이러한 체제 결속 축제 행사는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함.

- 이번 선거를 통해 북한은 지도부의 연속성, 내부 정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북한 헌법 규정대로 5년 주기의 대의원 선거를 개최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례적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국가기관 기능과 내부 정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함.
 - 대의원의 교체 비율이 50퍼센트에 달하나 이는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없음.
 - 주요 중요 직책의 담당자를 실무형 젊은 층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1차 회의에서의 교체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폭도 크지 않음.

○1차 회의가 핵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지만, 새로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며 다만 외무성의 입장을 확인하고 뒷받침하는 기능을 함.

- 이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회의의 권위를 빌어 미국에 대한 입장을 보다 강하게 천명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새로운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신임 총리에 박봉주가 임명된 것은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고 부르고 있는 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박봉주는 2002년 10월 경제시찰단 단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북한 내각 성원의 대부분이 경제 전문가라는 것을 볼 때, 북한이 경제 상황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공업과 관련이 깊은 화학공업상 출신의 박봉주는 내각 총리로서 민생 경제를 총괄할 것으로 보이며, 군수공업 중심지인 자강도당 비서이자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으로 새로이 승격된 연형묵은 ‘국방공업 우선론’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정책 방향>

○핵문제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

- 제11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는 북한이 핵문제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을 확인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에서 고학력 및 전문가의 비중이 높아

졌으며, 박봉주 총리 등 남한 경제 사정에 밝은 경제 전문가의 중용을 볼 때,

- 앞으로 북한의 내부 경제 정책이 보다 합리성을 띠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함.
- 기존 한국이 취해왔던 북한 경제 개선에 대한 합리적 설득을 강화하며, 상응한 반응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한 지원을 지속 추진함.

○북한은 앞으로도 핵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바,

- 북한이 6자회담 등에서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건설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한 기존에 남북간에 합의하였던 경협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러한 협력 사업이 북한 내부의 변화 및 온건파의 입지 강화에 대한 의의를 미국과 일본 등에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함.

<자료 1> 역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2)

기 별	선거일	실제임기(년)	헌법상 임기	비고
제1기	1948. 8.25.	1948. 9. 2.~1957. 9.17. (9년)	3년	
제2기	1957. 8.27.	1957. 9.18.~1962.10.21. (5년 1개월)	3년■4년	'54.10.30. 개헌
제3기	1962.10. 8.	1962.10.22.~1967.12.13. (5년 1개월)	4년	
제4기	1967.11.25.	1967.12.14.~1972.12.24. (5년)	4년	
제5기	1972.12.12.	1972.12.25.~1977.12.14. (5년)	4년	
제6기	1977.11.11.	1977.12.15.~1982. 4. 4. (4년 3개월)	4년	
제7기	1982. 2.28.	1982. 4. 5.~1986.12.28. (4년 8개월)	4년	
제8기	1986.11. 2.	1986.12.29.~1990. 5.23. (3년 5개월)	4년	
제9기	1990. 4.22.	1990. 5.24.~1998. 9. 4. (8년 3개월)	4년■5년	'92.4.9. 개헌
제10기	1998. 7.26.	1998. 9. 5.~2003. 9. (5년)	5년	

2) 여기 자료는 주간북한동향(제659호) : 2003-08-29 ~ 2003-09-04 참조.

<자료 2> 역대 최고인민회의 선거 개관

기별	선거일	대의원수	투표율/ 찬성률	비 고
제1기	'48. 8.25.	572 (360+212)	99.97/98.49	인구 5만 명당 1인 (조작된 남한 출신 대의원 360명 포함, 흑백함 투표)
제2기	'57. 8.27.	215	99.99/99.92	흑백함 투표
제3기	'62.10. 8.	383	100/100	인구 3만 명당 1인 단일 함 투표
제4기	'67.11.25.	457	100/100	"
제5기	'72.12.12.	541	100/100	"
제6기	'77.11.11.	579	100/100	"
제7기	'82. 2.28.	615	100/100	"
제8기	'86.11. 2.	635	100/100	"
제9기	'90. 4.22.	687	99.78/100	"
제10기	'98. 7.26.	687	99.85/100	인구수 비례로 선거시 결정, 단일함 투표
제11기	'03. 8. 3.	687	99.99/100	"

<자료 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명단

리을설, 류미영, 김경희, 김복남, 강준호, 김영남, 김영복, 류충렬,
장성택, 리제강, 홍서헌, 리순임, 신성보, 유일웅, 오이종, 김정호,
리경일, 윤석천, 전경수, 황길철, 최장애, 김희택, 배영규, 광상식,
김성희, 허정숙, 조명록, 리운국, 리명옥, 강석주, 엄승근, 량만길,
박정순, 김동운, 박성철, 백학림, 김인남, 김영춘, 오익제, 박관오,
김광철, 김익현, 백용천, 김화숙, 리화실, 강남익, 송춘식, 리동찬,
정명옥, 김일철, 홍성남, 김성희, 박봉남, 김복실, 임만순, 장덕영,
문석불, 리승호, 김세명, 김호제, 김중린, 강광수, 리경철, 신일남,
문상민, 조운제, 리웅찬, 한재록, 리정록, 김철만, 위영애, 김영주,
리영용, 허득남, 노광철, 김윤혁, 윤기정, 최홍일, 고인호, 염창룡,
김국태, 변영립, 리광호, 안명옥, 장 철, 김영대, 소주정, 황순희,
최태복, 김봉실, 조창덕, 안인건, 리봉수, 김명윤, 계영삼, 로봉호,
김기남, 강순희, 한정화, 정하철, 김용철, 리우호, 채희정, 정완익,
리용무, 최분희, 김영길, 리용철, 최룡익, 강일관, 주동일, 리길송,
강관주, 유범순, 최응권, 김정각, 백성남, 리무영, 김금숙, 리재항,
정용혁, 박태화, 송호경, 김순화, 전영식, 김복신, 강영섭, 리창원,
김순집, 라성환, 원정삼, 리금범, 림경숙, 장성우, 김옥련, 오명일,
림상중, 강부필, 지재룡, 문명학, 양만식, 박동석, 김유봉, 서병복,
리히일, 려원구, 박윤건, 신응식, 김두익, 김연화, 강형봉, 전재록,
최승철, 장병태, 김명희, 최 영, 최종률, 함정건, 한광복, 강영태,
정문산, 박영훈, 조대하, 라영란, 손석근, 김려수, 김재화, 권현숙,
김준걸, 최성원, 강철원, 전금진, 리주오, 장 응, 김룡근, 김정길,
류재명, 박용석, 리봉익, 정재식, 김영순, 리영건, 김희삼, 광철호,
허환철, 최영덕, 홍선옥, 신태욱, 안창련, 한운국, 한병만, 김봉수,

조강철, 김무전, 김창수, 리광근, 박명훈, 변덕상, 김용삼, 김양건,
 최후용, 김익철, 최광철, 전경선, 김인순, 김학철, 림동옥, 정영철,
 박용길, 문재철, 김평해, 백복남, 박순희, 손경남, 장재언, 리상룡,
 장 철, 문학준, 박경삼, 리수용, 장진건, 서춘영, 송광철, 김희선,
 김영재, 조정림, 윤동현, 오순영, 김덕일, 리원철, 김기룡, 김봉일,
 박성실, 손운성, 리경범, 현원국, 정선문, 차명옥, 전호철, 문병금,
 안영현, 한봉운, 리홍섭, 리득남, 김수조, 백세봉, 곽영남, 변태준,
 김혜란, 김인숙, 오수용, 김영중, 박 성, 리상무, 김대순, 연형목,
 강원중, 정승재, 한성규, 정춘실, 김동은, 럼희룡, 신관진, 주규창,
 로해순, 김채란, 김순영, 강혜숙, 박성옥, 럼인윤, 김동선, 리춘구,
 김인남, 최기룡, 김치덕, 리 단, 량경복, 조경철, 리정숙, 최희정,
 최경술, 허종만, 황윤남, 승상섭, 지상만, 로익화, 허남순, 김춘녀,
 계응태, 리종산, 김일호, 리상주, 황순희, 안승옥, 조규일, 최수현,
 강길영, 백남일, 리준희, 송효남, 원창룡, 박정진, 리 철, 리정숙,
 김병화, 리종국, 최칠남, 정옥동, 리명철, 김 정, 최진수, 서풍근,
 김병률, 주진구, 안민철, 최종건, 서승철, 태형철, 함성도, 최수일,
 김병환, 홍계식, 권춘학, 황휘상, 오응창, 문병록, 리경식, 리만성,
 안춘섭, 김화순, 김옥규, 오영춘, 박희덕, 강련학, 리태식, 김운기,
 김승옥, 최남균, 김병훈, 박의춘, 김용순, 송윤희, 백 설, 장명실,
 최정선, 문경덕, 조혜숙, 한성룡, 박재필, 리히헌, 리경일, 박덕관,
 고규일, 김룡연, 라창렬, 송승조, 최용선, 박철회, 김영애, 채강환,
 오극렬, 김덕중, 윤 철, 문일봉, 김정옥, 신현광, 양형섭, 고정익,
 로배권, 백남순, 리종식, 원동구, 주기찬, 김성용, 박광조, 김시학,
 황상권, 김소자, 박명식, 박남철, 봉찬호, 김정록, 리철호, 로두철,
 최광철, 박창련, 안경호, 김일근, 배달준, 리찬복, 김령성, 리교상,
 김명걸, 김지원, 김병송, 리극수, 김유호, 김원일, 정기훈, 서만술,

홍종구, 한원일, 홍석진, 리용수, 류금렬, 김진규, 석경수, 우두태,
 김정심, 김영식, 정성옥, 손금월, 신병철, 리용선, 서석윤, 전선웅,
 김인복, 리종혁, 오광철, 정병상, 심상대, 변룡세, 손삼술, 한수만,
 김홍수, 김기우, 문영철, 김승연, 고종덕, 지영춘, 리환기, 강능수,
 박중근, 신대균, 권이순, 황영삼, 김제동, 리문영, 박삼호, 리광남,
 최관영, 리종무, 리철봉, 정문수, 리창한, 전해성, 리원일, 전대원,
 최인호, 고선옥, 남진히, 한장빈, 한재명, 강덕수, 차경일, 박명철,
 김양점, 허영춘, 손현남, 송춘섭, 리성웅, 리호림, 리제선, 럽순길,
 김화월, 주영숙, 박성일, 김영국, 김양근, 박봉주, 신안선, 조병주,
 정병곤, 우원석, 허 학, 장명학, 김종영, 한우철, 리추옥, 류경옥,
 리효선, 유경숙, 박인주, 신성우, 한희환, 김만상, 김수학, 문영선,
 동영일, 전철구, 리의현, 리영애, 지기선, 김승남, 차승수, 김성덕,
 박문식, 한주환, 장영걸, 김풍기, 장동운, 김영걸, 박익동, 박남기,
 오기석, 리영숙, 량수정, 강태무, 황재경, 김완수, 리태남, 김재권,
 장순금, 우동측, 홍사연, 김송훈, 전경남, 김규훈, 박성수, 필영근,
 장일선, 박길연, 김봉식, 박성춘, 송준택, 고정식, 황봉영, 장선옥,
 남송록, 황옥선, 조명용, 조윤희, 김창규, 고증호, 신동선, 김계관,
 김두남, 김경호, 송순녀, 허한룡, 김용진, 최관준, 리 호, 이정식,
 김춘금, 홍석형, 태장헌, 고기훈, 동 훈, 전승훈, 주춘섭, 한홍표,
 김민숙, 전성호, 태선희, 김형찬, 송금옥, 전병섭, 김원복, 김태봉,
 최길주, 표일석, 송룡수, 김의순, 김동일, 송정희, 박수길, 리귀옥,
 리상철, 리태일, 김성중, 한치설, 정찬경, 석길호, 림영철, 박광철,
 박명훈, 정영선, 최용호, 김수열, 박창식, 홍린섭, 전광록, 장인숙,
 주순옥, 장용석, 림죽선, 리일남, 박철호, 김명희, 리봉죽, 한명국,
 김형덕, 최춘황, 박근수, 차영철, 최기준, 리공필, 최덕주, 연태정,
 김경호, 송정수, 리현섭, 김용일, 박길만, 김동규, 김동협, 리영복,

김득삼, 정운업, 리호현, 김영일, 오세인, 정명조, 리혜철, 고명희,
김수덕, 전병호, 곽범기, 김형남, 문응조, 길철혁, 김덕훈, 김정숙,
림명환, 임종실, 조희건, 김윤심, 최준길, 한승로, 오금철, 차준식,
리병철, 한두현, 김기선, 리춘일, 김승연, 박재경, 려춘석, 방창덕,
김상익, 리영길, 현철해, 리원정, 리시중, 김원홍, 리 호, 최형관,
김정일, 리형룡, 정호균, 전진수, 박창건, 김문중, 변인선, 장영봉,
김룡운, 주순철, 김형룡, 전재권, 김정현, 김을영, 리명수, 남상락,
림용희, 리영호, 박원식, 정명도, 박영식, 리태봉, 허성일, 신금연,
정창렬, 박윤활, 리병삼, 전창복, 윤정린, 김금선, 리국준, 김창섭,
김승범, 최룡수, 심원일, 리무웅, 김정남, 로경준, 박인영.

<자료 4> 주요 국가지도기관 현황

([REDACTED] : 변경)

가. 국방위원회

- 위 원 장 : 김정일
- 제1부위원장 : 조명록
- 부위원장 : [REDACTED], 이용무
- 위 원 : 김영춘, [REDACTED], [REDACTED], 전병호, [REDACTED]

※ 이을설, 백학림, 김철만 탈락

나. 최고인민회의

< 의장단 >

- 의 장 : 최태복
- 부의장 : ■■■■■, 여원구

< 상임위원회 >

- 위 원 장 : 김영남
- 부위원장 : 양형섭, 김영대
- 서 기 장 : 김윤혁
- 명예부위원장 : 박성철, 김영주
- 위 원 : 유미영, 강영섭, ■■■■■, ■■■■■, 김경호, 승상섭, 박순희, 염순길, 박태화, 이광호, 태형철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

- 위원장 : ■■■■■
- 위 원 : ■■■■■, ■■■■■, 이용복, ■■■■■, 정문산, 우두태

< 법제위원회 >

- 위원장 : ■■■■■
- 위 원 : ■■■■■, ■■■■■, 박관오, ■■■■■, 최수헌

< 예산위원회 >

- 위원장 : ■■■■■
- 위 원 : 이태남, 홍서현, ■■■■■, ■■■■■, ■■■■■, 조혜숙

다. 중앙검찰소 소장 : ██████████

라. 중앙재판소 소장 : 김병률

마. 내각(34개부서 : 27성, 3위원회, 1원, 1은행, 2국)

내각총리 : ██████████	채취공업상 : ██████████
내각부총리 : 광범기, ██████████, ██████████	전자공업상 : 오수용
※ 조창덕, 신일남 탈락	금속기계공업상 : ██████████
인민보안상 : 최용수	건설건재공업상 : 조운희
국가계획위원장 : ██████████	철도상 : 김용삼
전기석탄공업상 : 주동일	육해운상 : 김영일
농업상 : 이경식	체신상 : 이금범
화학공업상 : ██████████	문화상 : ██████████
경공업상 : 이주오	재정상 : 문일봉
무역상 : 이광근	노동상 : 이원일
임업상 : 이상무	보건상 : 김수학
수산상 : 이성웅	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 : 박명철
도시경영상 : 최종건	국가검열상 : 김의순
국토환경보호상 : 장일선	과학원장 : 변영립
국가건설감독상 : 배달준	중앙은행 총재 : 김완수
상업상 : 이용선	중앙통계국장 : 김창수
수매양정상 : 최남균	사무국장 : 정문산
교육상 : 김용진	